기호1번 자승스님

기호2번 보선스님

기호3번 대우스님

기호4번 장주스님

기호5번 혜총스님

희망 vs 위기 같은 현실 다른 관점 … 34대 총무원장 선거 종책 분석

문제인식·해결방안 '대동소이', 실현이 관건

'교구중심, 한국불교의 미래입니다' '대통' '정장수가 구현으로 위기의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자승스님과 기호 2번 보선스님의 슬로건이다. 제주도 지난 선거를 비롯한 역대 총무원장 선거가 슬로건이다. 곧 자승스님 측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종무행정을 내세우고 있다면, 보선스님 측은 도덕성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구중심체는 자승스님이 이미 33대 총무원장으로 일려면서 세운 방침이다. 곧 전국 신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자신이 재임을 해야 한다는 얘시로 풀이된다. 반면 보선스님은 20대 집행부의 골자와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이를 개혁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승스님의 임기 중에 있었던 의혹과 논란을 겨냥한 얘그으로도 볼 수 있다.

주요 후보들은 현안 운영기조도 천명했다. 전해박으로는 대동소이하다.

자승스님은 스교구중심체 실현과 신도시 포교 스대중공의와 신계획 종무행정체 비구니 스님 권익향상 스행종종 전작 스총본산 성역화 상스 스종단 예산 1000억 원 시대, 재정개만 구축 스승가교육 및 포교역신 스불교문화를 21세기 신불이상장 등력으로 육성불전 스종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 스불교문화